

세계를 향한 첫걸음, 환일!!!!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은미 이사장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COVID19 감염으로 온 나라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잘 적응하여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또한 이루어지이다”

경천, 애국, 애인의 교훈 아래,
2021 신입생 여러분들이 환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몰찬 추위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각고의 인내와 노력으로 최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걸음씩 작은 노력을 모아 우리의 재능을 펼쳐야 합니다.

세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환일을 드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라고 하신
설립자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교정에서 그 푸르름을 먹고
가을 노란 은행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흐드러지게 필 벚꽃과 함께 신입생 여러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환일의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면-8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세계를 향한 첫걸음, 환일 | 이사장님 글

2면 환영사 | 간부교사 및 부서별 업무 소개

3면-5면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6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선후배 인사 | 2021학년도 1학기 주요행사 및 중간, 기말고사 일정

7면-8면 학교소식



환영사

환일에 입학하는 복 있는 신입생이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장 박종관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6:24-26)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를 가르쳐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뿌리로부터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 없는 자는 겨와 같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와도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목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과 크기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거절합니다. 죄인들의 길도, 남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게 됨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함으로 심판의 길과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분별력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환일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일의 미래인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일의 새 얼굴,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감 이정철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2021년 새해 환일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환일에서 보낼 앞으로의 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의 입시 준비는 물론 즐거운 학창 시절을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정규 수업 외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영재학급, 심화토론, 논술 등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이 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창제, 체육 한마당, 가을밤 열린 음악회, 봉학마루제 등 친구들과 협력을 하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행사를 치르며 여러분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의 가치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해 실력과 인성 모두 성장하는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둘째, 꿈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까?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나이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꿈이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내일이 기다려진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 초롱초롱한 눈빛이 살아 있는 고등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학교 선생님 모두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드리며 힘차게 학교생활을 맞이해 봅시다.



간부 교사 및 부서별 업무 소개



행정실 이재욱 실장

- 학교 회계 업무
- 인사담당
- 증명서 발급
- 급식 운영



교무부 최성호 부장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연간 학사 일정 계획 및 관리
- 4대 고사 총괄
- 대학수학능력시험 총괄
- 학적, 출결, 시상 업무
- 학교운영관리위원회 관리



창의인성부 구정희 부장

- 영재학급 운영
- 학력 평가 관리 및 성적 분석
- 독서, 논술, 토론 교육
-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학교 신문 발간
- 각종 경시대회, 인성 교육, 통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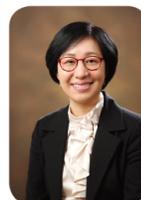
생활체육안전부 한재혁 부장

-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적응 훈련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자치활동 활성화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졸업여행, 리더십캠프
- 봉사활동,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진학부 오혜경 부장

- 대입진학 업무
-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 멘토링
- 심층 면접 및 모의 적성고사



방과후학교부 김민선 부장

- 방과후학교 구성 및 자율학습 운영
- 개인별 자율학습 통계
- 자율학습실 관리
- 자기주도학습상 총괄



미래교육부 김효숙 부장

- 신앙지도 업무 총괄
- 합창대회, 성가경연대회, 열린음악회
- 방송업무 총괄
- 장학생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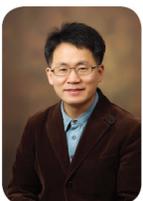
정보 및 진로상담부 임부현 부장

- 학교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시
-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 지원
- 진로 직업 체험 운영
- 대학탐방, 전공 설명회
- 전공 심화 탐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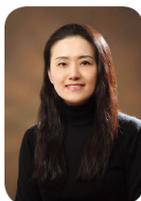
1학년부 박준우 부장

- 신입생 등록 업무
- 1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1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소규모테마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2학년부 이승원 부장

- 대학 전공 탐색 안내
- 2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2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소규모테마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3학년부 허성희 부장

- 입시 및 진학 지도
- 3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3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졸업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학년 1반 담임 박현주



신입생 여러분 환일고 입학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기억이 엇그제인데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의 각오와 고등학교 입학할 때의 각오가 어떻게 다른가요? 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와 입학한 후 3년 후 여러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 생활도 학업도 모든 것이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하루를 분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만큼 본인이 꾸는 꿈과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환일 spirit으로 환일맨이 되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여행자

1학년 2반 담임 탁우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기록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7)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움의 전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의 하나님 말씀처럼 지식의 근본은 기록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3년을 지내며 아름다운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서 힘이 되어 줄 선생님, 친구들과 어려움을 나누며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날개가 가장 긴 새(약 3m) ‘알바트로스’는 하루에 최대 500마일(약 805km)까지 날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날개 짓을 많이 하지 않고 날개를 펼쳐서 공기와 바람의 흐름에 맡기어 효율적인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날개 짓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날개를 펼쳐 마지막 도착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환일인

1학년 3반 담임 양성임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일고 입학에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환일을 지원 하였을까요?

부모님의 권유든 친구들을 따라서 왔든 여러분은 현재 봉화마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보람 있게 보낼 수도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후회하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입학하는가에 달렸습니다.

학교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환일에서 3년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환일동산에서 여러분의 꿈을 맘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 합니다.



경천(敬天) :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일인

새학기 새출발

1학년 1반

- 김대영 김동하 김상윤 김서현 김수겸 김운성 김지환
- 김희성 박현서 백경인 심희성 안태권 이성민 이승민
- 이현수 장도건 정효민 채세웅 홍찬의

1학년 2반

- 김건희 김동호 김민규 김재운 김준영 문병준 설승욱
- 송승주 심민태 오세윤 이동주 이민제 이우진 이 현
- 이형우 장예성 장현태 정태현 한이정

1학년 3반

- 곽효준 김다니엘 김민규 김민철 김진서 김현우 박서운
- 박 진 송강희 오영준 오인혁 육덕연 이건욱 이윤호
- 이조안 조준민 한승민 한승윤 허재승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학년 4반 담임 김지훈



청운의 꿈을 안고 환일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학생의 설렘이 졸업생의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일에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 ‘대입’을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대답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정원 49만7218명, 입학자 정원 37만3470명의 숫자가 보여주듯 수험생보다 입학 정원이 더 많은 2024년에 여러분은 모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까? 다양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인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소통형 인재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재이든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인재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게 목표를 세워 성장하길 바랍니다. 3년 후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랑해! 환일! 힘을 내! 환일

1학년 5반 담임 김재철



안녕하세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낮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슴 떨리는 일이며, 이러한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안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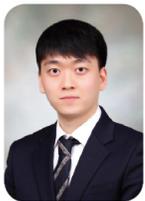
마음속에 충만한 기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마음을 혼드는 불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잘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힘차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학년 6반 담임 최우식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환일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인 환일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을 더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이 무엇이든 누구나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노력은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함께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꿈을 꾸는 자의 것이다.



애국(愛國) : 나라를 사랑하는 환일인



1학년 4반

- 김민준 김선우 김시훈 김의영 배준호 소인욱 심준우
- 양한열 유현우 윤형민 이대권 이수현 이원재 이윤성
- 전성연 조종현 한종엽 허성주

1학년 5반

- 김규래 김도성 김유한 김주영 김찬수 김태윤 박기태
- 박지성 박태영 연동규 오준재 유진환 이강호 이상혁
- 이성재 이세윤 장재민 전도원 최우성

1학년 6반

- 고도현 김동하 김민혁 김영우 김준형 김지훈 신원호
- 심우석 우현승 윤서진 윤성열 이건휘 이승운 이윤호
- 이재준 이하담 이현빈 임성식 홍준호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행복한 학창 시절을 위하여!!!!

1학년 7반 담임 김경신



우선 환일이라는 매개체로 사제시간이라는 귀한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감도 생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두려움과 불안감.....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여 익숙하고 편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합니다. 물론 중학교 보다 훨씬 어려워진 학습 내용, 성적 스트레스, 수면 시간의 절대 부족 등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겁먹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세요. 그럼 '어머..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 자신이 매우 대견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정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순간 순간에서 느껴지는 좋은 감정,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역시 여러분들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환일에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냅시다.



빈틈 사용법

1학년 8반 담임 임경희



환일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여러분에게 선생님도 좋아하는 손명찬 선생님의 시를 읽어주고 싶습니다. 귀한 동행을 만나고 싶으세요? 빈틈을 보여 주세요. 우정과 사랑이 그리 들어옵니다.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으세요? 빈틈을 보여 주세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리 찾아옵니다. 동료 후배들과 잘 지내고 싶으세요? 빈틈을 보여 주세요. 끈끈한 의리와 끈이 그리 이어집니다. 사람 냄새 나게 살고 싶으세요? 빈틈을 보여 주세요. 좋은 햇살과 꽃향기가, 그리 스며듭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빈틈을 보여 주세요. 축복과 은혜가 그리 깃듭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좋은 햇살과 꽃향기가 스며드는 환일의 터전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가며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출발선상에서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환일의 시간 속에서 빈틈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빈틈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을 안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을 찾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치열하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학년 9반 담임 김동현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앞둔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차게 환일에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이 시간들을 멋지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이 활동은 나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그 어느 시간 보다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정진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애인(愛人) : 이웃을 사랑하는 환일인

1학년 7반

강동형 강연욱 김민수 김민준 김윤민 김희중 박세원
박호준 송대엽 심광엽 유태우 이상민 이준원 임요한
장현동 정종민 정현수 채현식 최형민

1학년 8반

공현민 김경민 김두현 김민규 김원영 김진의 김한솔
문시운 손현웅 신성호 유동훈 윤성욱 이수형 이원준
이준수 이형준 정상윤 정소망 한상원

1학년 9반

김규영 김준원 김채원 김한성 노호현 문우주 박지훈
서진우 안세현 안태건 유서준 이윤민 이지성 장민기
장현우 최진범 한승기 허재인 조광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학년도 환일고 신입생 170명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첫날은 학교의 역사를 비롯하여 설립자님과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은 교육과정 및 대입전략, AI 융합 교육, 국영수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 날은 스포츠 한마당(자유투, 럭비농구)을 하며 아직은 서먹서먹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2박 3일 간 강원도에서 스키를 타며 선생님, 친구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으나 올해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스키캠프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도 무색하게 할 만큼 신입생들의 열정이 대단했고 특히 학생들이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모든 행사에 참여해 3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잘 마무리 되었다.

2학년 김민규 기자



선후배 인사

나의 새로운 등지, 환일고

신입생 정소망



환일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정소망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해 정들었던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진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니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익숙했던 중학교라는 등지를 떠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중학교에 입학할 때 느꼈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발을 내딛는 느낌'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마음은 새로운 만남과 환경에 대한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이번에 나와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은 누구일까?"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질문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환일고의 모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환일고에 입학해 같이 생활하게 될 앞으로의 3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중학교 생활 중 보았던 환일고는 여러 가지 행사와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아리, 여러 가지 부서,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문 사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일고에 입학했으니 저도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업에 열중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것을 배우며, 안으로도, 밖으로도 한껏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제 목표와 진로를 정해 마지막까지 그 곳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 갑자기 늘어난 공부의 양과 책임으로 인해 부담도 많고 고민도 많아질 것입니다. 때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설립자故김예환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일고의 모든 여러분, 앞으로 함께 생활할 시간동안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적지만 앞으로의 환일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저를 많이 성장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처럼 최후에 웃는 자,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환일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회장 이희현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8대 전교회장이희현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환일고등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신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여러분의 십 대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게 될 곳입니다. 물론 적응되지 않은 학교생활이 쉽지않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어느 순간 환일고등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런 추억들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의 입학은 여러분들 삶의 큰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행사

3월	2일(화) 입학식 / 23일(화) 학교 방문의 날
4월	2일(금) 영재학급 입학식 / 4일(월) 부활절 촛불예배
5월	7일(금) 고2 체육대회, 고3 문화탐방 / 28일(금) 고1, 2 합창대회
6월	4일(금) 고3 체육대회, 고1, 2 등행/ 11일(금) 고1 체육대회
7월	6일(화)~9일(금) 고1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6일(화)~8일(목) 고2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15일(목) 방학식



2021학년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일정

	고1	고2	고3
중간고사	4/27(화)~4/30(금)	4/27(화)~5/3(월)	4/27(화)~5/3(월)
기말고사	6/29(화)~7/2(금)	6/29(화)~7/5(월)	6/29(화)~7/5(월)



동아리 안내

학교 축제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다. 본교는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 가을에 축제를 한다. 그런데 그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1년간 동아리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모아 전시와 공연에서 그 결실을 선보이는 것이다. 본교는 창체 동아리 51개, 자율 동아리 43개(2020년 기준)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구뿐만 아닌 재능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입생 여러분도 자신의 흥미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추억에 남는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

학년	동아리 이름	학년	동아리 이름
1,2 학년	영어원작감상반	3 학년	Hi-KIMC
	영어소설읽기반		사고력 향상을 위한 토론반(이과)
	영자신문읽기반		사고력 향상을 위한토론반(문과)
	퍼즐반		수학사탐구반
	체스반		야생조류탐구반
	진로동아리(1학년)		응용수학탐구반
	진로동아리(2학년)		과학탐구반
	농구반		ENRD(영어소설 읽고 토론하기)
	축구반		체육진로진학탐색반
	족구반		신문기사스크랩반
	서양고전음악탐구반	매체연구반	
	학습탐구반(1학년)	역사탐구반	
	수학비타민반	시사영어토론반	
	또래상담반	진로탐색반(직업반)	
	인문고전활동반	환일이코노믹스	
	세계유산탐구반	사격부	
	수학퀴즈반	방송반	
	수학탐구반	도시반(길우회)	
	수학영화탐구반	은행나무 신문편집	
	세계와역사반	미술반	
프라모델반	경배와찬양		
시반	합창반(1)		
도시탐색반	합창반(2)		
기타연주반	환경연구반(빗물)		
과학잡지탐독반	선물달기반		
컴퓨터코딩반(1학년)			

| 창체 동아리 조직표 (2020년 예시) |

주요 동아리 소개

경배와 찬양단 :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관련 동아리로, 매주 월요일 3교시에 실시하는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찬양과 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기다린다.

학교신문 편집반 : 우리학교의 교목인 은행나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문편집반으로 한 일고의 얼굴인 은행나무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이다. 1년에 총 5회(입학호, 여름방학호, 개교기념호, 겨울방학호, 졸업호)의 신문을 제작하며 학교의 주요 행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글쓰기, 사진 찍기 등에 취미가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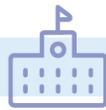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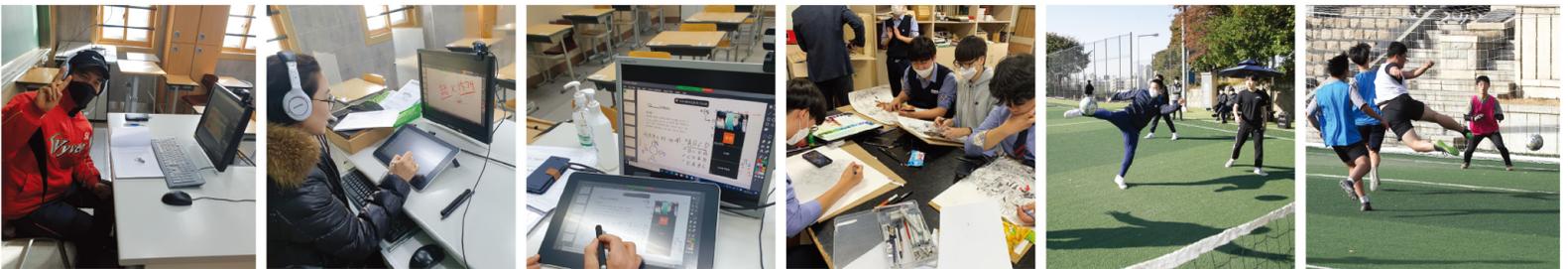
방송부 : 일명 HBS, 방송부는 고등학생들의 모방 동아리이기도 하다. 본교 방송부는 월요일 예배, 학급 경전회, 명사 특강, 부활절 촛불 예배, 봉학 마루제 등 학교의 모든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특히 방송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합창부 : 환일고 합창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아리로 해마다 고교합창제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나다.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매개로 선우배 간의 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꼭 지원하기 바란다.



방과후학교 및 특기 적성 안내

우리학교는 7교시 수업 종료 후 50분간 방과후학교 및 특기 적성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 1, 2차, 여름방학, 겨울방학 1, 2차 이렇게 1년 간 총 7회 분기로 나누어 월수금, 화목반으로 진행된다. 강좌 구성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어, 탐구와 같은 수능을 준비하는 교과반과 축구, 농구, 족구, 헬스,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 적성반이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제 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중후군)가 유행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방과후학교 및 특기 적성 수업이 진행되었다.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환일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생 여러분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기 바란다.



환일 프리스쿨(PreSchool)

환일고에 입학하는 환일중 27명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경천관 2층에서 열린 2021 환일 프리스쿨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학교에서 마련한 간식을 먹으며 환일중-환일고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간단한 다과를 마친 후 달라진 대입 제도에 관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선배님들과의 조별 활동에서 학교 생활과 학습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들으며 친목도 도모했다. 특히 선배님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고등학교 생활을 들려주어 막연하게 느껴졌던 학교생활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입학 전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입생 오준재 기자



제 68회 졸업식

2021년 2월 5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 68회 졸업식이 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제 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로 인해 그동안의 졸업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교는 안전수칙을 고려해 강당 참석 인원을 최소화으로 줄였으며, 강당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행사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정철 교감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 이세열 서울시 의원, 장덕준 마포구 구의원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다. 내빈 소개 후 학교 연혁 및 설립자, 이사장님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그 후 재학생들이 축하 연주를 하여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3년 간 환일 교정에서 보낸 시간을 담은 동영상도 나왔을 때 졸업생들은 환호를 하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마음 한 켠의 추억으로 남겼다. 김은미 이사장님은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내리셨다. 자랑스러운 환일고 졸업생 243명은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든 교정을 떠났다.



스승님께 드리는 글

스승님께 드리는 글

2021년 2월 5일 졸업생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 제 67대 학생회장 이경수입니다.
어느덧 벌써 환일고등학교에서의 3년이 훌쩍 지나가고 새롭게 사회의 첫 발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환일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서의 힘든 시간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두들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학생 한 명 한 명을 챙겨주시며 온라인상으로 면접 준비도 해주시고, 진학 지도에 힘써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사명감이라는 세 글자를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어울리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울 것 같은 선생님들의 칭찬과 따끔한 충고 등 우리들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제 우리는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은 환일고등학교의 멋진 건물들, 운동장 그리고 따스한 햇살과 물과 같았던 선생님들, 우리들에게 따뜻한 햇갈과 물을 주신만큼 조그마한 새싹에서 커다란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환일고등학교 제 67대 학생회장 이경수 올림.

스승님께 드리는 글

2021년 2월 5일 졸업생 김준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된 김준수입니다. 우선 우리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을 꼭 되새겨 봤는데, 참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는 개정된 교육과정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고, 입시의 꽃인 3학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 하면서 수험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저희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어주시던, 언제나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3년간의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이사장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어느 샌가 무럭무럭 자란 저희는 이제 학교라는 보금자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겠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 저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될 수 있게 믿고 지켜보며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이 힘들었던 3년 곳곳이 버려내줘서, 좌절 속에서도 항상 함께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영재 수료식

2020학년도 영재학급 수료식이 환일고등학교 물리과학실, 생명과학실, 화학실에서 2월 4일에 실시하였다. 영재 담당선생님이신 이은형 선생님, 배수화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영재학급을 수료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셨다. 과학 부문의 권현준, 수학 부문의 조승범, 융합 부문의 송민규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각 부문의 대표로 고성주, 강동민, 이진호의 소감이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의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고 각 학급의 기념촬영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1년동안 꾸준히 학교에 나와 영재 수업을 들은 학생들 모두 수고하였고 수업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학년 이태연 기자



대입합격 현황

(2021.02.22 현재)

2021 대입 인원	최상위 3개 대학(30명) / 상위 9개 대학(50명)														서울권 137	서울 수도권대 210
	서울대	연세	고려	성균관	한양	중앙	경희	외국어	사관학교	카이스트	건국	동국	홍익			
	3	10	17	4	7	8	7	4	2	1	2	7	8			